

한라시론



민 무석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2021년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막이 열렸다. 올해 제주 포럼은 포용적 번영이 키워드이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전 세계 산업과 일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포용적 번영, 포용적 성장의 화두에 대해 다각도의 논의와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에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로 세계와 일상을 재편할 것이라는 국제기구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환경에서 포용적 성장의 핵

디지털 전환시대, 여성의 일과 포용적 성장

심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 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편리함과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층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 여부는 포용적 성장의 지표가 될 것이다. 그동안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여성은 전통적 직업군에 편향돼 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다양한 많은 여성기업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소규모, 자영업, 전통적 산업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성기업들의 디지털 대응력은 현저히

낮으며, 또한 여성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많은 경우 디지털 문해력이 낮으며, 교육훈련의 기회는 더욱 부족한 이들에게 팬데믹 이후 변화가 될 새로운 일자리나 일터의 방식은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각국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2019년 '디지털시대 여성참여를 위한 선언'을 한 바 있고, 이를 통해 각국의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기업과 시민단체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더욱 경주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여성들과 여성기업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24일) 제주포럼 세션에서 소개될 이스라엘의 'She Codes' (그녀는 코딩한다) 프로젝트는 기업과 대학과 정부(노동·

사회서비스부)가 힘을 합쳐 디지털 전환시대에 여성의 대응력을 여하히 높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 분야 기업과 대학들이 힘을 합쳐 향후 50%의 여성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프로젝트이다. 기업은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며, 공동체 정신을 공유한 500명의 여성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이끌고, 하이테크 분야 여성들이 강의로 나서 롤모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과 종교, 학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대면과 가상의 공간이 더욱 확장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사회문화 전반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집단이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용적 성장 사회가 되기를 염원한다.

사설

국제자유도시 미래비전 제대로 담아내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향후 10년간을 내다보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제주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2022년부터 2031년을 목표로 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막바지 절차에 접어든 가운데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2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용역역진에 1차산업이나 관광 전문가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용역역진에 1차산업이나 관광 전문가는 없고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다. 용역 자체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얼마전 도의회 현안보고 때도 의원들로부터 못매를 맞았다. 제주의 10년 후를 내다본 미래 비전보다는 기존에 다뤘던 사업에 대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자료부터 부실하게 작성된데다 지나치게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제 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청정 제주 트램은 제주의 도시구조와 맞지 않다. 도시교통수단으로나 친

환경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1차산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전략과 목표가 뒤죽박죽"이라 비판했다. 이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얼마전 도의회 현안보고 때도 의원들로부터 못매를 맞았다. 제주의 10년 후를 내다본 미래 비전보다는 기존에 다뤘던 사업에 대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자료부터 부실하게 작성된데다 지나치게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제 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청정 제주 트램은 제주의 도시구조와 맞지 않다. 도시교통수단으로나 친

편집국 25시

구간단속은 빛 좋은 개살구?



강 민 성  
행정사회부 기자  
kms510@halla.com

제주도에 구간단속이 늘어난다. 기존 10구간 카메라 24대에서 24개구간 카메라 53대로 감속 이상 늘린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 서만 속도를 줄이는 '깡겨루식 과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 주행 속도는 줄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구간단속 장비 확대는 고정식 단속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감사원에 따르면 구간단속 장비 설치 후 사고 건수가 42.1%, 인명피해는 45.3%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5·16도로 및 1100도로, 첨단로 등에 구간 단속 장비를 10월 중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

다. 제주시 연삼로의 경우 구간단속이 신제주로터리 부근에서 구세무서사거리 인근까지 설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사거리 우회 등 단속을 피할 방법은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삼로는 신호등도 많아 과속을 하더라도 신호에 걸리면 수분 정도가 소요돼 구간 단속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16도로에서도 구간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방면으로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속을 하는 차량들의 대다수가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우회했다. 구간단속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 주변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구간단속이 생기면 서 정체로 인한 답답함 등 불편한 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구간단속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전 가장 기초단체인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 구간단속 확대 취지인 '안전'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in

이준석 "윤석열 X파일 대응 계획 없어"

"입당 여부는 기다릴 수 밖에" 명 의 아동을 키우고 돌보는 일이 이웃과 사회의 연결 속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 그러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주축이 돼 아동 피해를 공공이 책임지는 꼼꼼한 아동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와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 이윤형기자

인사이드 공백 최소화 주문 ○○김태영 서귀포시장은 23일 영상회의로 개최한 '7월 시정정책회의'에서 상반기 예산 확보 및 분야별 성과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7월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주문. 김 시장은 "최초 본예산 1조원을 달성하고 '하영올레' 개장, 온라인 쇼핑물 '서귀포in정' 매출 7억2000만원 달성 등 시장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 이어 "재난재해 대책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 인사이드를 열고 전문가 1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첫 회의를 개최. 이 자리에서 안동우 시장은 "한

명의 아동을 키우고 돌보는 일이 이웃과 사회의 연결 속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 그러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주축이 돼 아동 피해를 공공이 책임지는 꼼꼼한 아동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와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 이윤형기자

인사이드 공백 최소화 주문 ○○김태영 서귀포시장은 23일 영상회의로 개최한 '7월 시정정책회의'에서 상반기 예산 확보 및 분야별 성과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7월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주문. 김 시장은 "최초 본예산 1조원을 달성하고 '하영올레' 개장, 온라인 쇼핑물 '서귀포in정' 매출 7억2000만원 달성 등 시장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 이어 "재난재해 대책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 인사이드를 열고 전문가 1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첫 회의를 개최. 이 자리에서 안동우 시장은 "한

외국인 관광시장 회복 전략 서두를 때다

제주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내국인 중심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정부의 7월 거리두기 완화로 단체관광이 부활 조짐이지만 외국인 관광시장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연히 제주 관광시장이 코로나19 안전을 전제로 외국인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이유다. 최근 방역 강화로 외국인 교류 회복방안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Travel bubble)' 계획은 제주에 기회다. 제주에 '트래블 버블' 도입시 외국인 관광객 시장 회복의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도가 이달중 제주 기점 '트래블 버블' 도입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임을 공식화했다. 현재 정부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과 트래블 버블 합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트래블 버블은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한 국가간 여행 허용에다 2주간 자가격리 면제, 입국제한 조치 완화 등을 위한 것이

다. 제주는 작년 2월 무사증 중지 이후 국제직항노선도 중단 상태다. 여행업계 경영난에다 출국·카지노 납부금으로 모이는 관광진흥기금도 고갈위기에 '트래블 버블' 추진이 해외관광객 유치의 '마중물'로 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도는 '트래블 버블' 외에도 국내외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총체적인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을 전제로 한 전략은 당연하다. 공항 입국시 여행객 방역존, 검역 등을 위한 별도 장소 마련과 여행업체 대상의 안전한 상품 개발, 업체별 방역 전담관리사 지정·운영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선 안된다. 또 행정과 업계는 국내외 시장 회복 후 감염증 확산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관광전략도 세워야 한다. 현 제주 관광의 위기는 분명 '기회'로 바뀔 수 있다. 그 답은 용에다 2주간 자가격리 면제, 입국제한 조치 완화 등을 위한 것이

**부 고**  
김수성(前 초등학교 교장) 어머니  
제주양씨 원구(향년 101세)께서 서기 2021년 6월 23일 00시 46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1년 6월 24일(목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25일(금요일) 오전 9시 20분  
※ 중앙성당 10시 미사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6빈소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김수성 며느리 현진숙(御) 수현 문영자 손 자 김성주 손 녀 김윤지 봉주 현지  
※ 연락처: 김수성 010-8661-1217 김수현 010-5028-1423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고호건(1935. 1. 11생)  
·최후주소 : 서귀포시 인창로808번길 55 (토평동)  
상기지는 2021년 5월 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6월 15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2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재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서귀포시 동홍중앙로90번길 51-1 (토평동) 2021년 6월 24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고순숙, 고승철, 고승갑, 고인희, 고창우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323-증-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경주김공 일승(국가 유공자, 향년 9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6월 24일  
아 들 김성배 며느리 황수옥 성남 김미희 딸 김복희 사 위 정희규 복순 고종진 김성태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